
mormonandgay.lds.org에서 발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을 기꺼이 희생하셨는데, 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음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하고 모든 고통과 불의의 값을 치르고 모든 사람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풀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엘마서 7:11~13 참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

2009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가 성에 살든지 오두막에 살든지, 잘생겼든지 수수하게 생겼든지, 유명하든지 잊혀진 사람이든지에 조금도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방향을 잃거나 나침반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수하며, 형언할 수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하나님의 사랑”, 2009년 10월 연차 대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과 기혼자와 독신, 그리고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 혹은 게이나 레즈비언, 양성애자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습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39)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한복음 15:12)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한복음 14:15 참조) 서로 사랑함으로써(요한복음 13:34 참조)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이 있거나 자신을 게이라고 여기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만 떨어져 있는 누군가와 가까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압니

다. 우리는 그와 대화할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할 것이며, 서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잦을수록 그것은 더욱 오래 지속될 것이며, 사랑의 결속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만일 서로 간에 대화와 귀 기울여 듣는 것과 행함이 없는 시간이 오래 되게 되면 그러한 결속은 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전지전능하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필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친구처럼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즉 말하고 귀 기울여 듣고 행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 1991년 4월 연차 대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모사이야서 2:17)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은 염려하고, 사랑은 귀를 기울이고, 사랑은 포용하며, 사랑은 영감을 줍니다. 사랑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중심인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요한1서 4:8) 구주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우리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무수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꼭 그래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부정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거나 그 가치에 바탕을 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받은 계시를 통해 알고 있는, 아버지께서 만드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지상에 왔습니다. 그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문화와 믿음이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물론경의 한 선지자가 가르쳤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니파이후서 31:20)”(“타인을 사랑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2014년 10월 연차 대회)

신성한 사랑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릇 나 주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31) 그러나 한편 기꺼이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1:32)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활하고 이를 옹호하는 일에서 조금도 물러서서는 안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반영하기 위해, 우리는 그 누구도 버림받거나 혼자이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서로를 열린 마음으로 온전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구주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린도전서 13:12)

필멸의 존재인 우리의 이해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니파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니파이전서 11:17)

우리의 개인적인 여정을 위한 답과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내재된 권능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분은 또한 세상 사람이 겪게 될 고통과 고난을 전부 경험하셨습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 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엘마서 7:11).

동성에게 끌리는 감정은 죄가 아니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의 원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6년에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과 관련된 것을 포함해 이 민감한 감정 혹은 성향의 원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랜스 비 워크먼 장로와의 인터뷰, 2006년: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

동성에게 끌리는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히 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현실입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동성에 행위를 한다면 죄입니다. 그런 끌림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교회는 [동성에게 끌리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을 내밉니다.”(“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리아호나*, 2015년 9월, 15쪽)

동성에게 끌리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어려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이 있거나 자신을 게이라고 여기는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들을 따스하게 맞이해주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그는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니파이후서 26:33)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사도행전 10:34)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면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으며, 그분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이 있거나 스스로 게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빛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원이 동성에게 끌리는 느낌이 있지만 어떤 동성에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은 경우, 지도자는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고 불의한 생각을 통제하겠다고 결심하는 일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 이런 회원은 교회 부름을 받을 수 있다. 회원이 합당하고 다른 모든 면에서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또한 성전 추천서를 지니고 성전 의식을 받을 수도 있다.”(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1.4.6)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랑합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하고도 통제하기 매우 어려운 성향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 이상의 성향을 갖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러한 성향에 따라 행동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의 다른 회원들처럼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순결의 법이나 교회의 도덕적 표준을 어긴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의 선도 조치를 받게 됩니다.”(“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 어떤 질문을 합니까?”, 1998년 10월 연차 대회)

개인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바로 지금 주님의 일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충실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충실한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받게 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은사와 재능이 있으며 각 세대에 신성한 계획이 펼쳐지도록 공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좋은 것과 필수적인 것, 때로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은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취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필멸의 짐을 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승영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옹호하기 위해 설 때,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함께 행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분께 향하는 이들이 박탈당하고 상실할 모든 것을 예측했으며, 중국에는 그 모든 것을 보상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가지신 것보다 적게 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결혼하고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2015년 4월 연차 대회)

순결의 법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성적 순결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결혼하지 않은 남녀 또는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율법 중 하나를 어기는 일이며, 우리의 영원한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순결에 대한 주님의 율법은 합법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는 성적 관계를 금하고, 결혼 관계 안에서는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성적 관계는 남편과 아내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적합하다. 간음, 사통, 동성에 관계, 다른 모든 거룩하지 않거나 부자연스럽거나 순수하지 않은 행위는 죄이다.”(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1.4.5)

개인의 성적 성향과 관계없이 순결의 법을 어긴다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겨날 것이니라. 그러나 간음한 자가 자기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이를 버리고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용서할지니라.”(교리와 성약 42:24~25)